

보도시점 2024. 7. 24.(수) 08:00 배포 2024. 7. 24.(수) 08:00

## 30개 지역문화재단과 문화로 지역 균형발전 이룰 협력방안 모색

- 7. 24. 용호성 제1차관, 평창에서 전국 광역·기초문화재단 간담회 개최
- ‘제21회 평창 대관령음악제’ 현장도 찾아 개막 축하, 공연 관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용호성 제1차관은 7월 24일(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 광역·기초문화재단 대표들을 만나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문화예술 현장인 ‘제21회 평창 대관령음악제’를 찾는다.

지역 문화예술 정책 현장 의견수렴,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통합 추진 격려

이번 지역문화재단 간담회에서는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대표와 13개 기초문화재단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문화예술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문화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용호성 차관은 간담회 이후 전국 광역문화재단 연합체인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와 기초문화재단 연합체인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가 통합법인 설립을 논의하는 자리에도 참석해 두 연합회의 통합 추진을 격려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대표 클래식 음악 축제 ‘평창 대관령음악제’ 개막 축하, 공연 관람

용호성 차관은 대관령 야외공연장에서 열리는 ‘제21회 평창 대관령음악제’ 현장을 방문해 케이비에스(KBS)교향악단(미클로시 페리니 협연)이 연주하는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2번’ 등 개막공연을 관람하고 축제의 시작을 축하한다.

2004년에 처음 시작된 ‘평창 대관령음악제’는 대한민국 대표 클래식 음악 축제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7월 24일(수)부터 8월 3일(토)까지 평창을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열린다. ‘루트비히(Ludwig)’를 주제로 베토벤의 주요 작품과 그의 영향을 주고받은 시대별 작곡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 중앙-지방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예술 꽃피운다

용호성 차관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마음껏 문화예술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문화재단 간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 민간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선영 (044-203-2611)
		담당자	사무관	권재오 (044-203-2631)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